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육성 대학

KNUAF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한국농수산대학교학보

발행인 : 이 주 명
주 간 : 서 건 식
편집장 : 정 정 아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전 화 : 063-238-9652

제113호 https://www.af.ac.kr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한농대 졸업생 50명, 3개국 해외연수로 첨단 농업의 미래를 만나다

지난 8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졸업생 50명이 약 일주일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영농 및 영어 활동에 종사하는 한농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의 선진 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향후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연수를 국가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일본: 대규모 6차 산업과 로컬 자원】

일본 연수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버섯 전공 서건식 교수의 인솔하에 17명의 졸업생이 참여하였으며 '6차 산업과 농수산업'을 주제로 현지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동안 참가자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테마로 운영되는 고자키낫토(발효 마을), 치바대학 식물공장 및 농업기계연구실, JA 사이타마 본점, 토요스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그리푸드 엑스포 도쿄 2026, 일본 국제 해산물 박람회, 카나가와현 수산기술센터, THE FARM UNIVERSAL OSAKA(가든 센터), JA 오사카 아스카데쿠루데 직매장, 우에무라 목장을 시찰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인 대두를 활용해 낫토를 개발 및 판매하는 미치노에키 고자키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 생산, 가공, 유통이 결합된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을 체험했다. 또한 치바대학 식물공장에서는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한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 기술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서 식물공장의 역할을 학습했으며 이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한 졸업생은 국외연수 보고서를 통해 "미래 농업은 변화하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운영 중인 산림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지역 특산물인 공주 알밤을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졸업생 해외연수 일본팀 사진

【대만: 선진 AI 농업과 공장형 6차 산업】

대만 연수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교양학부 강동현 교수의 인솔하에 16명의 졸업생이 참여하여 '선진 AI 농업 및 6차 산업'을 주제로 현지 연수를 진행했다. 대만은 잦은 자연재해와 기온 상승 등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연수팀은 가장 먼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엽채류 다목적 승용 파종기와 방제기 등 현지의 첨단 농기계를 지원하는 대만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타이베이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검사실, 이란현 레저농업개발협회, 주즈샹(橘之鄉) 금귤 관광공장, 대만 농업부 종묘개량번식장, 버섯부락(蘑菇部落) 스마트 버섯 공장, 일월담 호호차(HOHOCHA) 홍차 공장에 방문하였다.


졸업생 해외연수 대만팀 사진

특히 타이베이 도매시장은 대만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이곳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분 이내에 잔류 농약을 정밀하게 검출해내는 신속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일 약 2,30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란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금귤을 활용한 가공시설과 레저 체험 농업 현장을 방문했고, 또 4단계 첨단 공정을 갖춘 스마트 버섯 생산 공장도 차례로 견학했다. 이를 통해 생산과 가공,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현장을 다각도로 둘러보았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 안전성 검사(SGS) 인증을 거치는 일월담 홍차 공장 등을 시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졸업생은 대만의 농산업에 대해 "현지의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소규모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첨단 농업과 식품 수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수팀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산림 전공 이경철 교수의 인솔하에 16명의 졸업생이 참여하여 '첨단농업과 식품산업'을 주제로 현지 연수를 진행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공장형 수직 수산양식 시설(Blue Ocean Aquaculture Technology)과 현대자동차이노베이션의 로보틱스 기반 완전 자동화 수직농장을 찾아 고효율 도심형 생산 시스템을 학습했다. 아울러 K-Food의 수요 트렌드와 수출을 위한 검역 및 유통 실무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무역 본사와 현지 대형 마트인 FairPrice 마트를 방문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Cold Storage와 K-Plus Market을 둘러보며 현지 마켓의 유통 구조를 다각도로 살폈다. 또한 저비용 수경재배 및 스마트 환경제어를 실천하는 엉클 앤디 팜과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소(MARDI)를 방문해 경제성 높은 스마트팜 모델과 국가 농업 연구 동향을 확인했다. 이후 홍롱 인터내셔널 용과농장에 방문해 품종 차별화 및 가공을 통한 복합 6차 산업 모델을 체험했고, 마지막으로 푸트라자야 농업유산공원을 시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졸업생 해외연수 싱가폴·말레이시아팀 사진

이번 졸업생 해외연수는 작물, 수산, 낙농 분야의 산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레저, 로컬 등과 융합된 선진 농산업의 현장을 견학했다. 다른 나라의 농업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며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농대에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농대 졸업생 해외연수의 공고는 매년 7월 중 졸업생광장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며, 이에 더해 '한농대 아카데미'를 통해 법률 지원, 마케팅 정보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세무 카드뉴스, 농업 기술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로드 하여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향후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농어업 경영 고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실습부 안은별 기자

농협과 함께하는 4박 5일 '2026년 농산업 밸류체인' 현장교육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밸류체인 교육생 단체사진

한농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운영하는 '2026년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이 지난 6월과 7월, 경기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한농대-농협중앙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농업인의 농산업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대상은 1, 3학년 재학생이며, 신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졌다. 1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2기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각각 4박 5일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았다. 기수별 모집 인원은 50명씩, 총 100명 규모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하계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전 과정을 수료하면 1학점이 부여된다. 강의 시간은 총 27시간 내외이다. 또한 참가비는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밸류체인, 왜 배우는가?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은 원자재 조달부터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가치가 더해지는 사슬로 분석하는 개념이다. 농수산업 또한 품목 선정, 재배·수확, 선별·가공, 브랜드·마케팅, 유통·판매로 이어지는 긴 사슬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산 효율은 높아도 수익성은 낮아지기 쉽다.

한농대는 농협과 협력해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전 과정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밸류체인을 배운 청년농은 작목 선택부터 판로·가격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유통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 프로그램 일정

교육은 5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은 '농산업의 시작, 나와 농협의 연결'을 주제로 아이스브레이킹과 특강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성공 전략과 AI·GPT 등 최신 트렌드를 다뤘다. 둘째 날은 '선도농 현장체험'으로, 선도농업인의 경영과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 셋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농산업 밸류체인 현장견학'이 이어졌는데, NH농협은행의 농업금융자금 활용법부터 농협 농산업박물관, 산지유통센터(APC), 농식품 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로마트 등을 둘러보며 밸류체인의 각 단계를 직접 확인했다. 마지막 날은 '농협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로, 농산업 벤처창업 로드맵과 청년농육성 프로젝트, 디지털 마케팅·유통 판로 컨설팅 등 이론 심화 과정으로 마무리됐다.


AI트렌드 특강

참가자 인터뷰

이렇게 5일 동안 이론과 현장을 오가며 채워진 교육 과정을, 참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을까? 이번 '2026년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에 참여한 식량작물전공 3학년 이강륜 학우와 채소전공 1학년 김승유 학우를 만나, 4박 5일의 현장을 직접 겪은 소감을 들어봤다.

Q. 밸류체인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이강륜: 학교 안내 문자로 처음 알게 됐는데,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지난 교육 기록을 보니 견학 위주로 꽤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아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학점까지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김승유: 저도 학교에서 보내준 홍보 문자를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농협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길래 그만큼 더 실무적인 교육일 것이라 기대했고 또 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어요.

Q. 일정표를 보니 하루에 4곳씩 견학을 가셨던데, 어떠셨어요?

이강륜: 네, 일정표가 촘촘하게 짜여있어서 저녁쯤에는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견학이 많긴 했지만 앉아서 듣는 교육도 적절히 있었어요. 이동 경로도 효율적으로 준비돼서 정말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농장에만 견학을 가봤는데, 이번 교육 덕분에 가락공판장, 은행, 물류센터, 유통센터까지 가볼 수 있어서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승유: 버스로 자주 이동했지만 또 구경할 게 많다 보니 저는 꽤 즐거웠어요. 특히 인솔 해주시는 팀장님께서 한 명 한 명 컨디션도 신경 써주시고, 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해 주셔서 힘든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또 책상에 앉아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농장주님이나 담당자님께 재배·경영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이해도 쉽고 더 와닿아서 재밌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으신가요?

이강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뚱아농장'의 김동현 대표님의 강의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이시자 동시에 한농대 졸업생 선배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근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셔서 저와는 품목이 달랐지만, 저희가 농창업을 할 때 정책자금 잘 받는 방법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동현 대표님 덕분에 창업에 실용적인 꿀팁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승유: 저는 '부자농원'의 이호명 대표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은 아버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부자(父子)농원을 운영하고 계신 한농대 채소과 졸업생이신데, 지금은 한농대 2학년 실습생들의 현장실습도 직접 지도하고 계세요. 저도 같은 채소 전공이라 재배·경영 방법을 다루는 대표님 강의를 더 집중해서 들었고, 관심 분야다 보니 질의응답 시간에도 도움 되는 답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주제 발표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강륜: 네, '농산업 벤처창업 콘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조별 발표 경진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강사님이 던져주신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다양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라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의견들도 접할 수 있어서 그것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김승유: 주제를 골라서 조별로 의논한 뒤 PPT로 발표하는 조별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조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귀농 인구 확보'라는 주제를 골라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 대안을 직접 찾아 발표했어요. 한농대는 학생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조원들과 의견을 내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고, 덕분에 조원 형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Q. 합숙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강륜: 농협 센터 안에 있는 직원용 기숙사에서 2인 1실로 지냈습니다. 급식도 맛있었어요. 낮에는 조원들과 다녔고, 숙소에서는 룸메이트랑 그날 배운 내용들로 얘기를 나눴어요. 저와는 다른 관점의 의견을 들으며 나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4박 5일 동안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김승유: 2인 1실을 썼는데, 조별 활동을 함께한 형님과 같은 조원끼리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날 있을 발표 준비를 방에서 같이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방 자체도 쾌적하고 깨끗해서 좋았는데, 여름이라 조금 덥긴 했습니다. 구내식당 밥이 정말 맛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Q. 교육을 마친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강륜: 같이 신청한 분들이 다들 적극적이어서 함께 열중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자체가 좋았어요. 청년농부께는 창업과 농장 경영을, 농협 기관에서는 경매·유통과 재무관리를 배우면서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가락공판장과 농협중앙회 견학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경매장은 처음 가봐서 그런지 눈으로 직접 보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승유: 이번 교육을 통해 밸류체인이라는 개념과 그 구성 요소를 현장에서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대표님들을 직접 뵈며 실용적인 창업농 팁을 얻은 것도 큰 수확이었고요. 무엇보다 4박 5일 동안 조별 활동으로 알게 된 형님들, 다른 전공 학우들, 농장 견학에서 만나 뵌 한농대 졸업생 대표님들까지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라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내 저희를 세심하게 챙겨주신 한민선 팀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이주명 총장은 앞으로도 농협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 청년농들이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은 강의실 밖에서 농업의 전체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내년에도 더 많은 학우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나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미래 농업의 현장을 걷다, 2026 한농대 캠퍼스 투어

지난 7월 29일과 8월 12일, 양일간 한국농수산대학교 캠퍼스 일대에서 '2026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오픈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한농대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농대의 실습시설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 캠퍼스투어 1차 단체사진

93명 참가… 대학 홈페이지와 SNS 통해 모집

이번 캠퍼스 투어는 2주간의 신청 기간(6월 29일~7월 13일)을 거쳐 1차 61명, 2차 32명으로 총 9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모집은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행사 일정과 참가 방법 등이 안내됐다.

오픈 캠퍼스 투어는 오전 10시에 학생회관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시작됐다. 학생회관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인 청학관으로 이동해 시설을 살펴봤다. 이후 대학 버스를 이용해 말산업 실습장, PTC 온실, 기후변화 교육센터 등 실습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실습장 투어가 끝난 뒤에는 창의 교육관으로 이동해 입시설명회와 이주명 총장의 인사 및 특강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학 및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한농대의 교육환경과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명 총장의 특강

입시설명회와 특강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학생 식당인 다온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캠퍼스 투어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식사를 포함해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

한농대 캠퍼스 투어 담당자는 "이번 오픈 캠퍼스 투어가 예비 신입생들이 한농대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와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와 교육·실습 시설을 둘러보고 전공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한농대의 교육환경과 특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캠퍼스 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1차 투어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은 "인터넷이나 책자로만 접하던 첨단 스마트팜 실습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한농대 진학에 대한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라며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시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픈 캠퍼스 투어는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행사는 7월과 8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오픈 캠퍼스 투어는 고등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과 달리 대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청학관과 학생 식당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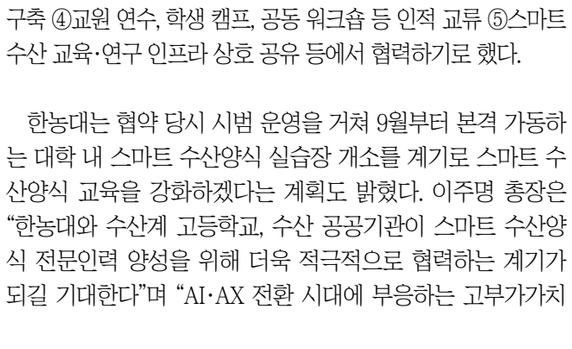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많은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1차 캠퍼스 투어에 참여해 한농대와 농수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투어를 통해 한농대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농수산업의 비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픈 캠퍼스 투어가 한농대 진학을 고민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교육환경과 전공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문화부 이예강 기자

한농대-수산자원공단-수산계 고교가 손잡고 AI 기술로 수산인재 키우다

한농대, 스마트수산 인력양성 MOU 후속 준비…
실습 교육장 설치·평생교육원 과정 개설 추진중



스마트수산 인력육성 업무협약(MOU) 기념사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지난 7월 14일 한농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계 고등학교 4곳이 손을 맞잡고 '스마트수산 인력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한농대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마치고 실습 교육장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스마트수산 산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수산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농대와 수산 분야 공공기관, 수산계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해 '고교-대학-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스마트수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①스마트수산 분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②AI·AX 기반 수산교육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공동 연구 ③현장실습·산학연계·진로 연계 등 진학·취업 사다리 구축 ④교원 연수, 학생 캠프, 공동 워크숍 등 인적 교류 ⑤스마트수산 교육·연구 인프라 상호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농대는 협약 당시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대학 내 스마트 수산양식 실습장 개소를 계기로 스마트 수산양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와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 공공기관이 스마트 수산양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AI·AX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수산양식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 교육과정 개발 완료…실습 교육장은 수산과 실습동에 설치 중

협약 이후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농대 교학과에 문의한 결과, 스마트수산 분야 공동 교육과정은 이미 개발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학과는 현재 수산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육장은 수산과 실습동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수산 관련 교육과정은 한농대 평생교육원에 개설할 계획이다. 협약 발표 당시 9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 실습장은 현재 설치가 진행 중이며,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과 실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설 시기와 모집 규모 등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고교는 완도수산고, 여수해양과학고, 신안해양과학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등 수산계 고교 4곳이다. 완도수산고, 여수해양과학고, 신안해양과학고는 전남에, 한국해양마이스터고는 경북 포항에 있다. 일부 자료에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가 부산 소재로 표기돼 있으나,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의 2026년 9월 학교정보에 따르면 학교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이다. 참여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 한농대 교학과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수산과 김철원 교수가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마트수산 교육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경우 학교별 교육환경 차이와 실습장 수용 규모, 이동·숙박 등 운영 여건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교별 수산업 특성에 맞춰 기초·심화 과정을 나누는 방식이나 온라인 공동수업, 단기 집중 실습, 권역별 교육 거점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AI와 데이터 기술을 수산교육에 접목하고 고등학교, 대학, 공공기관을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공동 교육과정 개발이 마무리되고 실습 교육장 설치가 진행되면서 협약 내용이 교육 현장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교육장 운영과 평생교육원 과정 개설, 고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회부 안세희 기자

"한농대생, 뉴질랜드 방목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한-뉴 FTA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3기 선발,
원예환경시스템전공 3학년 N2M팀 인터뷰**



N2M팀의 뉴질랜드 연수 현장 단체사진

지난 1분기 본지는 2025년 한-뉴 FTA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2기에 출전해 5개 팀 중 3위를 차지한 원예환경시스템전공 리폼팀의 이주원 학우를 만났다. Reform팀은 원예 작물 부산물로 일회용품 대체재를 만들려던 처음 계획을, 뉴질랜드 현지에서 확인한 건축 수요와 친환경 선호에 맞춰 스티로폼 단열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폼으로 바꿨다. 이주원 학우는 3기에 도전할 후배들에게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에서 정한 큰 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연하게 세부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form팀이 3위로 남긴 그 길을 올해 같은 전공 3학년 학우들이 이어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해 뉴질랜드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이다. 1분기 인터뷰에 따르면 2기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팀이 국내에서 여러 차례 컨설팅을 받은 뒤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현지 발표와 귀국 후 발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7월 22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챌린저에는 34팀(124명)이 연수를 신청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5팀(20명)이 선발됐다. 다섯 팀 중 두 팀이 원예환경시스템전공 3학년 학우들로 꾸려졌다. 원예환경시스템전공 학우들은 1기부터 올해 3기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선발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호에서는 두 팀 가운데 N2M팀에 초점을 맞췄다.

N2M팀은 팀장 박건수, 부팀장 유지민과 조한광, 권민성 학우로 꾸려졌다. 팀명 N2M은 메탄 저감의 뜻을 담은 'No more methane'을 의미한다. 이들이 처음 내건 아이템은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메탄 저감 물질 기반 미네랄 블록'이었다. 그러나 뉴질랜드 연수를 거치며 아이템은 '메탄저감물질 개체별 맞춤 정밀공급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창업에서는 이처럼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피보팅(pivoting)이라고 부른다. 원예를 전공하는 네 학우가 축산 분야에 도전해 뉴질랜드 현장에서 아이템을 피보팅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았다.

Q. 이번 3기 창업 챌린저에 도전한 계기와 2기 Reform팀에게 받은 도움을 말씀해 주세요.

박건수: 2024년 학교 현수막에 저희 과 선배님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꼭 현수막에 이름을 걸어 보고, 해외 경험도 쌓아 보자'는 다짐에서 출발했습니다. 2기 연수생인 Reform팀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고, 뉴질랜드 농축산업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Q. 선발 과정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무엇이었고,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유지민: 확고한 문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6개월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이템의 차별성,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것과 사업 구체화 방법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Q. 국내에서 아이템 준비 중,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뉴질랜드 도착 후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권민성: 아이템 제형에 따른 균일 섭취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 출국 전, 그리고 연수 중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농장에 가보니 축사가 아니라 넓은 방목지에서 풀을 먹으며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군요. 또한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품종 개량을 통해 상대적으로 메탄을 덜 발생시키는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Q. 결국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미네랄 블록을 내려놓은 이유와 새 아이템을 소개해 주세요.

박건수: 기존 아이템인 미네랄 블록은 뉴질랜드의 방목 환경에서 균일 공급의 한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이 하루에 두 번 원형 착유장에서 착유를 한다는 점과 젖소의 비중이 육우보다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이템을 '메탄저감물질 개체별 맞춤 정밀공급 시스템'으로 피보팅했습니다.

※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의 농업생산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뉴질랜드의 젖소는 약 575만 마리로, 육우 약 383만 마리의 1.5배 수준이다.



뉴질랜드 목장의 방목 현장

Q. 원예환경시스템전공 학생들이 축산 분야 아이템에 도전했습니다. 비전공 분야여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조한광: 저희 전공이 축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 보니 대가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으로서 전공 분야가 아닌 축산 분야에도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부딪혀 보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남은 성과보고회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건수: 저희의 목표는 이번 연수팀 가운데 1등을 해 장관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수상을 통해 우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4기에 도전할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지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 위기를 큰 주제로 잡았고, 그중에서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또 약 6개월간의 긴 프로그램인 만큼 팀원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어가 가능한 팀원이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에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마음속 열정의 불씨를 열정의 태양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2M팀 아이템 변화 한눈에 보기】

- **처음 아이템:** 메탄 저감 물질 기반 미네랄 블록(반추동물 메탄 저감)
- **부딪힌 한계:** 방목 환경에서 제형에 따른 균일 섭취·공급의 한계
- **착안한 점:** 젖소는 하루 두 번 원형 착유장에서 착유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젖소가 육우보다 많음
- **바뀐 아이템:** 메탄저감물질 개체별 맞춤 정밀공급 시스템

출국 전 N2M팀의 가장 큰 고민은 방목 환경에서의 균일 섭취 문제였다. 팀은 뉴질랜드에서 가축을 축사가 아닌 방목지에서 기르고 사료를 거의 쓰지 않는 현장을 확인했고, 젖소가 하루 두 번 원형 착유장에서 착유한다는 점에 착안해 미네랄 블록을 '메탄저감물질 개체별 맞춤 정밀공급 시스템'으로 바꿨다. 메탄 저감이라는 큰 주제는 그대로 두고, 세부 해결 방식을 현장 조건에 맞춰 바꾼 것이다.

두 기수의 경험은 닮아있다. Reform팀과 N2M팀 모두 한국에서 준비한 아이템을 뉴질랜드 현장에서 다시 점검하고 바꿨다. 이주원 학우는 1분기 인터뷰에서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빠르게 다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N2M팀은 현지에서 알게 된 방목 환경과 착유 방식에 착안해 아이템을 바꿨다.

평가와 준비에 대한 두 팀의 답을 나란히 놓아 보면, 이주원 학우가 꼽은 심사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이었고, N2M팀이 체감한 평가의 핵심은 확고한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였다. 4기 도전자에게 건넨 조언에서도 Reform팀은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템과 발표에 능한 팀원을, N2M팀은 문제 인식과 팀워크, 영어가 가능한 팀원을 꼽았다.

N2M팀은 이제 연수팀 가운데 1등과 장관상을 목표로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1분기 인터뷰에서 이주원 학우는 2기 1위 팀이 기존의 불편함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1기부터 이어진 원예환경시스템전공 학우들의 도전이 올해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본지는 4분기에 성과보고회 결과와 함께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인터뷰에 응해 준 N2M팀 네 학우에게 감사를 전한다.

사회부 두기동 기자

학생도 대학도 바쁘게 달렸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한농대의 여름방학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방학,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정 안팎으로 분주히 활동했다. 재학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농협 밸류체인 교육과 안전교육을 비롯해 예비 수험생을 위한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농수산 산업계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및 관계 기관과의 뜻깊은 산학협력 협약까지 체결하는 결실을 보았다.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한농대의 7·8월 주요 소식을 전한다.

❶ 농협 밸류체인 과정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재학생의 농업 및 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농업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2026년 농산업 밸류체인' 과정 교육생을 모집했다. 경기 안성의 농협 창업농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기(6.29~7.3)와 2기(7.6~7.10)에 걸쳐 총 8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마케팅·금융에 대한 이론과 우수 스마트팜 농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농산업 가치사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농대는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농업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❷ 한농대 캠퍼스 투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1차(7월 29일)와 제2차(8월 12일)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아열대 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 원예 온실, 드론과 농기계 등 실전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첨단 기술 교육센터, 승마 및 마필 관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말산업 실습장 등 한농대만의 실습 시설과 기숙사, 학식 등을 체험하며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한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통해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과 졸업생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이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보조했다.



❸ 장기현장실습 여름철 안전교육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이수 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7월 16일에는 원예학부·축산학부, 7월 24일에는 작물산림학부·농수산융합학부 학생을 소집했다. 장기현장실습 정기 안전교육은 연 4회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교육에서는 온열질환, 폭우 등 자연재해 예방과 농기계 사고 대책, 실습생 권익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한농대는 실습장 점검, 실습 안전교육, 실습 지도 관리 등 지난해 수립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학 측은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지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❹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원 특별 교육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평생교육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2026 성장농 역량향상 프로그램 맞춤형과정 현장견학』을 공동 주최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총 60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특별 교육은 버섯 과정을 주제로 하여 표고, 양송이, 느타리류 재배 현장 견학 위주로 진행되었다. 2016년 시작된 이래 약 550명이 수료한 본 과정은, 한농대 교수진이 경영, 마케팅, ICT 스마트 설비 및 시스템, 수확 후 관리, 산업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인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❺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수산계 고교 업무협약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완도수산고등학교 등 수산계 고교 4곳과 스마트 수산인력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스마트 수산 산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AX 전환*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공동 교육과정 개발,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연구, 진학·취업 사다리 구축, 교육 인프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한 한농대는 9월달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대학 내 스마트 수산양식 실습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수산양식 전문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AX 전환: 인공지능을 조직 운영 전반에 통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❻ 일신하이폴리(주) 업무협약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8월 31일 일신하이폴리(주)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신하이폴리(주)는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제조 전문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한농대 졸업생 중 시설원예 경영자에게 매년 2천만 원 상당의 K-PO 필름*을 지원하고, 생육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최적 환경제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농대와 일신하이폴리(주)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농 정착 지원,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컨설팅,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하게 협력해 갈 방침이다. 이는 대학과 전문기업이 연계해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모범적 산학협력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K-PO 필름: 국산 농업용 폴리올레핀(PO) 비닐하우스 필름(농촌진흥청 공동개발)

❼ 졸업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총 50명의 졸업생이 각국의 농업 현장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일본 6차산업 현장견학(8.18~24, 17명),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농수산물 수출 연수(8.18~26, 17명), 대만 식품가공 견학(8.24~30, 16명) 과정이 무사히 진행되었다. 각 연수 프로그램은 방문 국가의 특징에 맞춰 기획되었으며, 지도교수가 동행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❽ 평생교육원 작목별 전문 교육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재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과 전국 농어업인에게 농수산 분야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학 기간에도 작목별 전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번 여름에는 '식량농업 전문가과정'과 '스마트 양봉실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식량농업 전문가과정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스마트 양봉실무 과정은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되었다. 평생교육원은 방학 중 진행된 과정 외에도 상시로 다양한 작목 교육을 운영하며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❾ 신규 교원 임용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8월 3일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신규 교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원예학부에 새로운 교수진을 맞이했다. 새롭게 부임한 신임 교수는 화훼 전공 강이로 조교수와 원예환경시스템 전공 박규현 조교수다. 두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이들의 합류로 원예학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8월 동안 한농대는 밸류체인 교육과 안전교육으로 재학생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캠퍼스 투어를 통해 예비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비전을 제시했다. 나아가 기업 및 수산계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미래 첨단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내실 있는 성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분주히 달린 한농대의 뜨거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부 김진아 기자

"1년간 실습의 성과를 나누다" - 한농대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난 5월 6일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홍보관에서 '제14회 장기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대회' 발표심사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2025학년도 장기현장실습을 수료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어 5월 15일에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5명, 장려상 7명 총 20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총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되었고, 추가로 대상·금상 수상자에게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선진지 견학 기회가 주어졌다.


'제 14회 장기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사진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은 2학년 전 과정 8개월간 농어업 현장에 직접 나가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다. 실습 내용 자체도 평가 요소지만, 핵심은 발표다. PPT 구성, 발표 전달력, 스피치 능력, 설득력, 표현력이 주요 평가 요소다. 따라서 같은 실습 이라도 이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가로 평가가 달라진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예환경시스템전공 24학번 유지민 학우를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Q. 발표전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A. 발표에는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시각 자료를 포함한 한 눈에 들어오는 PPT 자료와 발표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 큰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발표할 수 있는 연설 능력 등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Q. 발표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내가 이 발표의 주인공이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장에 들어갔었습니다.

Q. 발표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발표 당시에는 제 자신감을 가장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큰 목소리와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심사위원분들의 눈을 계속 마주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신있고 여유롭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정확한 딕션에 신경썼고 중간중간 불필요한 말, 예를 들어 말 사이에 어. 또는 음. 같은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대상 수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의 농업에 대한 열정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고 아무 기반도 없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가 끝나면 힘들고 피곤했지만, 현장 교수님께 찾아가 창업에 필요한 투자비 계획부터 상환 계획 등 도움을 받아 창업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열정을 봐주신 덕분에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실습 시작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나요?

A. 저는 실습을 가기 전 머리카락을 밀고 갔습니다. 올해는 실습에만 집중하며 실습 농장의 모든 것을 다 배워오자는 마음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밀면 아침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일할 때도 시원하니, 저처럼 열정 가득한 분들께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Q. 실습과 발표대회를 앞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실습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열정 넘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내가 농장주라는 정신으로 임하시고, 실습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나만의 해결 방법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면 후배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연습이 전부입니다. 5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어요. 발표장에 들어설 때는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실습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인 자리다. 발표 연습 50번, 100번.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언이다. 농창업 과정에서도 투자나 사업 설명을 위해 발표해야 할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 발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문화부 지온우 기자

2026년 제 12회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 공고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는 작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 17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 대상자는 5개월 이상 실습 중인 학생으로 선발 인원은 15명이다. 심사 일정은 기초심사(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심사(교무처)는 10월 20일 주간에 진행된다. 결과발표는 10월 27일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10월 내에 심사와 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밖에 심사기준, 심사기준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실습일지 파일, 시상 규모 등 정확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분기에 발간된 제111호에는 지난해 열린 실습일지 공모전 수상자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해당 호에 실린 '과제에서 나만의 기록으로: 실습일지에 담긴 태도와 변화' 기사는 수상자들의 공통점으로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짚었다. 수상자들은 실습을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일지를 과제로 여기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만의 기록으로 이어 나갔다. 수상자들의 일지 작성 노하우가 궁금한 독자라면 해당 기사를 읽어 보길 권한다.

여러분의 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실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나에게는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하루도 기록을 통해 다시 돌아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실습일지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작성한 기록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실습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12회 장기현장실습일지 콘테스트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 17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5개월 이상 실습 중인 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자신만의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실습일지를 단순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기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실습의 의미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실습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의 경험을 나만의 기록으로 남겨보길 바란다.

편집부 박인희 기자



1학년을 위한 실습장 선택 가이드
- 축산학부 편 -

장기현장실습을 앞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실습장을 선택해야 할까?' 관심 있는 축종이나 진로가 뚜렷하다면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 실습장을 선택하는 학생에게는 농장의 규모나 위치, 실습 내용, 근무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선택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실습장은 단순히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전공 지식을 익히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배움의 공간이다.

그렇다면 좋은 실습장은 어떤 곳일까.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실습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산학부 각 전공의 3학년 학생들이 직접 다녀온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장의 특징과 주요 실습 내용 및 얻은 경험을 살펴보며, 실습장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실습하고 있는 실습장을 소개해주세요.

오성혁: 안녕하세요. 25학번 가금전공 오성혁입니다. 현재 2학년 과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고 있는 농장은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유)이정이라는 육계 사육 농장입니다. 이정 농장은 계절이나 사육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평균 약 14~15만 마리의 육계를 5개 동에서 사육하고 있는 데다가, 비교적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창업농과 후계농이 오시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서: 안녕하세요. 저는 낙농전공 3학년 과대표 고준서입니다. 제가 실습한 곳은 경남 고성에 위치한 젖소 사육 전문 농가인 대낭목장입니다. 대낭목장에서는 낙농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젖소의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착유, 위생관리, 축사 관리 등 목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유준석: 안녕하세요. 한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준석입니다. 저는 한우 개량을 배우고 본가와의 거리도 고려하여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육종농가인 고센목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고센농장은 2024년 제3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한우 부문 대상을 받았고,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한우 육종 농가로 선정된 이력이 있어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이 실습장의 특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유준석 학우가 다닌 한우 육종 농가 '고센농장'

Q. 장기현장실습장에서 주로 어떤 업무와 활동을 경험했나요?

오성혁: 닭이 입식되어 있을 때는 하루 네 차례 계사를 순찰하며 폐사한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개체를 살펴봅니다. 그 외에도 계사에서 사용하는 음수에 약을 타거나 보조사료를 혼합해 급여하고, 계사 바닥이 질어지면 왕겨를 추가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출하 후에는 다음 입추를 준비하기 위해 계사 전체를 물청소하고 사료 급여 시설과 니플 라인을 소독합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5시까지이며, 출하나 솎기 작업이 있는 날에는 시설 정리와 소독 등의 추가 업무가 있습니다.

고준서: 대낭목장에서는 낙농업의 전반적인 현장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착유 작업을 하고 착유실 청소 및 착유 장비 세척과 같은 위생 관리에도 참여 했습니다. 착유우와 건유우의 상태에 맞춰 사료를 관리하고, 송아지에게 우유를 급여하거나 분유를 조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TMR 사료 급여, 깔짚 교체, 질병 예찰과 번식 관리 등 목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유준석: 보통 일출 전에 일어나 축사를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 분만한 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송아지의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를 점검한 뒤 건초와 사료를 급여했습니다. 비육우에게는 필요한 첨가제를 별도로 챙겨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축사를 순찰하고 저녁에 다시 사료를 급여했으며, 주기적으로 물통과 축사를 청소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못자리 조성, 밭의 돌 줍기, 비료 운반과 거름 내기 등 농가 상황에 맞는 농작업도 지원했습니다.

Q. 이 실습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성혁: 저는 집에 농장이 있는 후계농이지만 아직 농장 운영에 충분히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농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배우고, 앞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특히 본가 농장은 시설이 비교적 오래된 편이라 최신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설비의 작동 방식과 활용 방법을 직접 배우고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고준서: 저희 집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한우 농가에서 실습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젖소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국내 축산에서는 사양관리, 번식, 개량 기술 등 선진화된 축산 기술이 젖소 분야에서 비교적 먼저 도입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젖소 농가에서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축산 기술을 배우면, 앞으로 한우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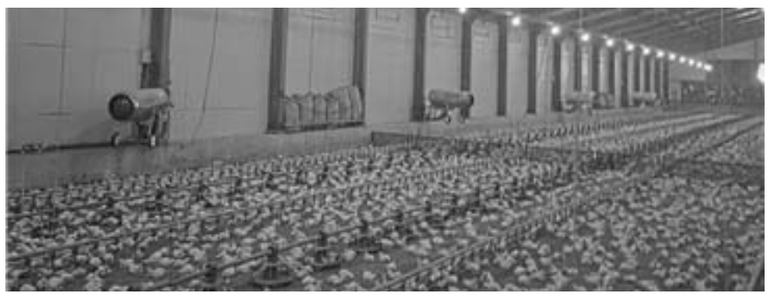
유준석: 이 실습장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육종농가인 만큼 한우 개량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종농가에서 실제로 한우를 개량해 온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본가 농장에도 적용해 앞으로 한우 개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본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해 휴무일에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고 실습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Q.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성혁: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실습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숙소와 식사, 교통 등 생활환경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장 실습은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자차 이용 혹은 이동할 방법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제가 실습한 실습장은 식비를 따로 지급하고 쌀은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밥을 해야 해서 간단한 요리를 익혀두는 것도 도움 됩니다. 또한 여름철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벌 작업복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본인에게 편한 침구류와 벌레 퇴치 용품도 챙기면 좋습니다.

고준서: 실습을 가기 전에 자신의 농가나 집의 현황과 사양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연결해 주는 실습 농장은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인정하신 우수한 농가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실습을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집 농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간다면 실습 농장과 우리 농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장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들어오고, 또 우리 농장에 적용할 방법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준석: 실습장이 육종농가일 경우에는 전공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전공지식이 충분하면 현장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현장에서 궁금한 점도 더 구체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 현장에서는 농기계를 자주 사용하므로 스키드로더나 트랙터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숙지하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성혁 학우가 다닌 육계농장 '(유)이정'

Q. 마지막으로 실습장을 선택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성혁: 실습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꼭 현장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쉬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자 참고 넘어가지 말고 지도교수님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습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부담을 갖기보다는 하나씩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되, 무엇보다 몸을 잘 챙기면서 안전하게 실습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서: 교수님들께서는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말씀을 자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습장에서 하는 일도 단순히 주어진 업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비로소 자신의 경험에 양분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맡게 되는 모든 일을 진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실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부딪치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진하십시오.

유준석: 실습은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은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실습장에 가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에 따라 얻어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실습에 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열정이 넘쳐 자칫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습을 많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실습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몸 잘 챙기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대낭목장 현장교수에게 직접 용접을 배운 고준서 학우

실습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좋은 실습장인가'를 찾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같은 축산 분야의 실습장이라도 다루는 축종과 주요 업무, 시설과 환경, 배울 수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학년들의 경험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신 시설과 농장 운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축종의 사양관리 기술을 배우거나 한우 개량과 같은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결국 실습장 선택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처음에는 실습장 선택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과 부족한 부분을 먼저 돌아보고, 각 실습장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비교한다면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실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번 기사가 실습장을 선택하는 후배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자신에게 맞는 실습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할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워크부 나은빈 기자

잿빛 산을 다시 초록빛으로…
-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실천 -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 산불. 우리나라도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2년에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산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불 피해 방지, 산불 예방 기관들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입산 통제, 예방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최악의 산불은 작년인 2025년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이다. 경상북도 의성, 안동, 산청, 울주 등 영남권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며, 그 피해 면적은 99,417ha 달한다. 이는 무려 축구장 13만 9,200개를 모아놓은 크기와 같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31명, 이재민 3,587명을 발생시켰다. 산불의 초기 원인은 사람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지만, 기후위기로 조성된 덥고 건조한 환경과 강한 서풍이 확산을 크게 키운 것으로 분석되며, 역대 기록 중 단일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 기준 모두 압도적인 역대 최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산불은 건조한 기후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주로 봄이나 가을에 자주 발생한다. 비가 오지 않는 봄은 산불 예방에 매우 어려우며 건조한 기후가 점차 늘어나면서 산불도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산불 피해를 겪은 후 산불 예방에 앞서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의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왔다. 그 결실은 올해(2026년) 봄철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림청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운영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은 98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 168건 대비 42% 감소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2건씩 발생하던 대형산불이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면적 역시 24ha에 그쳐 최근 10년 평균(영남 산불 제외 기준 1,148ha) 대비 2.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2025년) 경북 의성-안동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약 10만ha의 국가적 재난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안정된 흐름이다.

2026년 산불 발생 현황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산불 발생 건수는 26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335건) 대비 79.7% 수준으로 줄었다. 산림 피해 면적 역시 748ha로, 지난해 영남 산불을 포함한 10년 평균(13,946ha)의 5.4% 수준에 그쳤다.

산림청이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의 수치는 이보다 더 뚜렷하다. 이 기간 산불은 총 98건 발생해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168건) 대비 42% 감소했고, 소실된 산림 면적은 24.3ha로 10년 평균(11,483ha)의 0.2%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의 기상 여건은 오히려 평년보다 불리했다. 올해 3~4월은 최근 39년 중 각각 20번째, 14번째로 산불 위험도가 높은 기후 조건이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형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산림청의 강화된 사전 단속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산불의 약 90%는 불법 소각, 산업현장 실화, 건축물 화재 비화와 같은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 인접지의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기동 단속 인력을 예년보다 7배 이상 늘려 상시 순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계로 확인되는 산불 감소세는, 이러한 선제적 단속과 예방 활동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림청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다만 통계상의 개선이 산불 위험 자체가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불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

산불 감소 추세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예방은 여전히 개인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특히 농업현장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봄철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가피하게 소각해야 할 경우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하고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입산 시에는 라이터·성냥 등 화기 소지를 자제하고, 지정된 취사 구역 외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 성묘 시에는 향불과 초를 완전히 끈 것을 확인한 후 하산해야 한다. 산림청이 지정한 입산통제 기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산림재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를 함께 알리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산불 당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피해 지역에서 농림업을 하는 한농대 학우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게 될 한농인에게 산불은 언제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이며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산림전공 권형근 교수는 강의 중 2025년 경북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전했다. 불이 꺼지고 잔해만 남은 현장이었음에도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했다. 울창하고 웅장했던 숲이 전부 타버린 채 남은 재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 압도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산불은 자연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그 현장이 주는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였지만, 현장을 직접 가본 적 없는 기자에게도 그 무게감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산림을 전공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조차 압도당했다고 표현한 산불 피해 현장이, 통계 수치만으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운 재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산불의 피해는 통계나 수치로 판단한 것보다 더 깊다. 농가와 임가의 생계, 지역 생태계의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정비까지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많다.

불법 소각 자제, 입산 시 화기 소지 자제 등 개인 차원의 작은 실천이 실제 산불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농업을 업으로 삼는 한농인에게 산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임가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불 대응과 예방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편집부 박인희 기자

인간이 동물에게 묻는다. “너 행복하니?”
-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정의하는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며, 양호한 영양상태 및 안전한 환경에서 본성을 나타낼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은 적절한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양호한 관리와 영양을 제공하며, 질병예방과 치료는 물론 책임감 있는 돌봄과 인도적으로 다루면서 필요하다면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동물에게 신체적·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동물복지가 처음 탄생한 국가다. 1822년에 세계 최초의 「동물학대금지법안」을 마련했고, 2년 후에는 민간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다. 그리고 1876년에는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선진국에서 동물에게 자유를 주자는 운동이 있었고, 일본은 50여 년 전에 ‘동물의 복지와 관리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한 세기보다 더 시간이 지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또한 1993년에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는 오늘날 동물복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동물의 5가지 자유」를 제시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적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이 5가지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과 문화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의 5가지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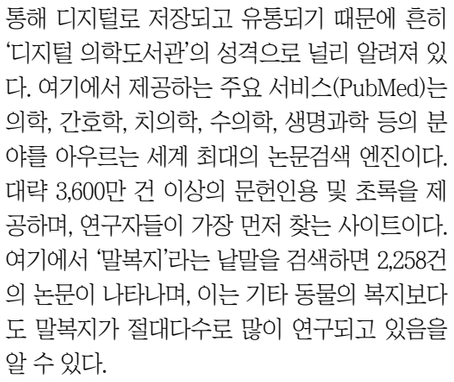
첫째, 갈증,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다. 깨끗한 물과 말의 소화 구조에 맞는 적절한 사료(목초 및 건초)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다. 눈·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마방(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통, 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다.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 발굽을 관리하는 장제,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면 재빠르게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다. 무리생활을 하는 말의 사회적 습성을 고려해 다른 말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방목을 통해 자유롭게 달릴 기회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다. 과도한 훈련이나 가혹한 도구 사용을 금지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햇빛을 거의 못보는 독일 탄광말. 1894년.

말복지는 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고유의 습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말복지는 모든 동물복지의 근간이 되는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말에게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말은 기타 동물과는 아주 다른 목적으로 길러진다. 처음에는 식량자원이었으나 훗날에는 군사, 농업, 교통, 레저스포츠, 반려동물 등 다양한 쓰임새로 발전했고, 또한 도시나 농촌에서 흔하게 보는 동물이었다. 그만큼 이용 목적에 따른 학대나 방치 위험이 높아 국제적으로 엄격한 복지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미국 메릴랜드주에는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립의학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의학 논문과 연구 데이터가 이곳을 통해 디지털로 저장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흔히 ‘디지털 의학도서관’의 성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PubMed)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논문검색 엔진이다. 대략 3,600만 건 이상의 문헌인용 및 초록을 제공하며,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이트이다. 여기에서 ‘말복지’라는 낱말을 검색하면 2,258건의 논문이 나타나며, 이는 기타 동물의 복지보다도 말복지가 절대다수로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축의 개체수

그렇다고 말의 개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말의 개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가축 1위는 당연히 닭(산란계와 육계)이다. 대략 330억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혹자는 지구를 ‘닭의 행성’이라 부른다. 이는 2위부터 꼴찌까지 다 합친 가축 수보다 많고 인류의 개체수보다 4배나 많은 수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중국이 53억 마리나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략 지구에 사는 7마리 중 1마리가 그곳에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위는 소인데 약 15억~17억 마리인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생물량(Biomass, 전체 몸무게의 합)으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축이다. 3위는 양이고 약 12억~13억 마리가 있다.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지에서 고기와 털(울)을 얻기 위해 대규모로 방목한다. 건조한 기후나 척박한 지형에서도 잘 버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고르게 분포해 있다. 4위는 돼지와 염소인데 각각 약 8억~10억 마리가 있다. 돼지는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사육될 만큼 아시아 지역의 소비량이 압도적이다. 또한 염소는 개발도상국이나 건조한 기후의 지역(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유제품 및 고기)으로 양과 비슷한 규모로 사육되고 있다.

말의 개체수는 전통적인 농경·유목 중심인 지난 18세기에 최대 5,000만 마리, 산업혁명기이자 도심물류 확장, 미국의 서부개척, 대규모 말이 끄는 수확기 개발 등과 맞물인 19세기에는 최대 1억 마리가 있을 정도로 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말의 시대’라 불렸는데 어디에서나 말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문학에서도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 프리드리히 니체의 일화 『토리노의 말』, 아동문학 『피노키오』, 게다가 이솝우화에서도 말과 당나귀가 등장한다.

- 말복지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말은 몸집이 크고 경제적·스포츠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특유의 복지 이슈들이 있다.

첫째, 생애 주기별 관리 (특히 은퇴마 복지)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이다. 경주마가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학대나 방치, 혹은 무분별한 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승용마로 재훈련(승용 전환)하거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휴양 시설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둘째, 훈련 및 경기 중의 과도한 통제 방지가 있다. 경마나 승마 경기에서 채찍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의 콧등에 매는 가죽 끈(코밴드)을 너무 꽉 조여 호흡을 방해하는지 측정 장치로 엄격히 검사하는 규칙(FEI 규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적절한 순치(길들이기)가 있다. 말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훈련법이 권장된다.

- 최신 트렌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은퇴마 이력추적을 위한 ‘말 등록의무제’ 도입, 학대마 구호를 위한 ‘말보호모니터링센터’ 운영 등 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말복지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즉, 인간의 이익보다 ‘말과의 파트너쉽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말 복지의 본질이다.

- 말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답은?

첫째, 마구간에 가둬두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초지에 방목하거나 패독에 풀어두는 시간을 최대로 해야 한다.

셋째, 말, 염소, 닭과 같은 동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곡물사료보다는 풀사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건강하고 잘 관리된 말복지 최고의 장소-초지.
© 박건도(말산업학과 졸업생).

- 말복지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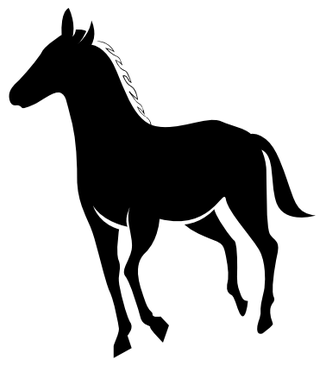
말복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말의 행동인데, 주로 마구간 안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즉, 이상행동(행동장애)을 할 때 말복지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생산자나 조련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물거나 뒷발로 차는 공격적 행동,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 말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등이 있다. 이는 곧 경주나 승마의 부진한 성적으로 이어지고, 말과 사람의 네임벨류를 떨어뜨림은 물론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장애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 원인은 동료들과 떨어져 있기에 불안이 증가하고, 혼자 있기에 고립되어 무척이나 무료하기 때문이다. 말이 출현한 5,500만 년 전부터 무리를 지어 살아가다가 가축이 되고 보니 고립되기에 마구간에 있는 말에서 행동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 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말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말에게 생리적 만족과 심리적 만족을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생리적 만족이란 좋은 초지, 양질의 사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심리적 만족이란 마방에 갇힌 말이 외롭지 않게 동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료는 반려 혹은 반려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 영어에서는 compan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회사 혹은 중대(中隊)를 의미하는 company와 어원이 같다. 이를 분해하면 ‘com’+‘panis’인데 이 뜻은 ‘함께’+‘빵’으로 해석된다. 라틴어 panis는 현대 스페인어의 pan, 프랑스어의 pain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포르투갈어 pão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뒤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빵이다. ‘함께 밥을 먹는 자’로서 식구(食口)와 다를 게 없고 더 나아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목숨을 의탁할 수 있는 깊은 신뢰관계인 사람’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해서 말과 함께 마주 앉아 빵을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니다. 동료처럼 잘 돌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말의 행복이 곧 인간의 행복인데 말이 좋아지면 인간은 더 좋아진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실천만이 남아있다.

축산학부(말산업반려동물전공)
교수 양재혁



농식품부,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 개최

청년농·한농대 재학생 등 48명 참여… 연말까지 '농업·농촌 2045 전략'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7일 서울 명동에서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청년농업인과 농촌창업가, 2030 청년자문단, 한농대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민간 전문가, 농식품부 소속기관 새내기 공무원 등 총 48명이 참석해 20년 뒤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우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시후(버섯 전공), 우리희망(과수 전공), 임루비(한우 전공), 장찬익(채소 전공), 정정아(식량작물 전공) 등 5명의 학생도 참석했다. 이들은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에 함께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부나 기관이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개방형 소통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45년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그린 2045년 농업·농촌

첫 번째 세션은 광복 이후 80년간의 농정 변화와 현재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안을 살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경제, 인구구조 변화, AI·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변화가 향후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최근 대두된 현안과 그 영향을 논의했다. 토론 의제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농업인구·세대교체, 농가소득·경영, 기술혁신, 농촌 정주·생활여건, 환경·지속가능성 등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2045 전략’의 수립 방향을 제시한 뒤, 참석자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공유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발전', '세대 전환'을 중심으로 2045년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다뤘다. 농식품부가 미래 전망과 검토 방향을 제시한 뒤 참석자들은 혁신적인 미래 농업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농촌의 모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20년 뒤 바라는 농업·농촌의 모습을 선택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당신의 선택은?'도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의 위기와 함께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농업·농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년 뒤를 내다본 '농업·농촌 2045 전략'

이번 타운홀 미팅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AI 전환 등 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도 이에 맞춰 농업·농촌 분야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 전략수립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거시농정·농산업혁신·농촌환경 등 3개 반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KREI와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미래소통팀’을 통해 외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농업·농촌 2045 전략’은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전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KREI는 킥오프 회의에서 광복 이후 농업정책이 1950~70년대 식량 증산 중심에서 1980~90년대 시장 개방 대응을 거쳐 2020년대 공익기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변화와 기후·인구구조·AI 등 장기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타운홀 미팅 현장

국민 의견 모아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 의견을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KREI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2045 전략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분야는 전략 명칭, 정책 아이디어, 자유의견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농업 생산성 혁신과 미래농업 전환,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조성 등을 제안 대상으로 제시했다. 우수 제안은 부처가 발굴한 과제와 전문가 의견 등과 함께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과 2030 청년자문단 아이디어 회의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농촌 2045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창업 자금? 대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 농대생이 대학 시절 도전해야 할 창업 공모전 가이드 5선 -

졸업과 동시에 청년창업농(청창농) 대출을 찾아보는 것. 한농대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 수순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최대 3억 원의 저금리 자금은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창업은 자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 사업 모델 설계, 투자자·소비자 앞에서의 설득 경험 — 이러한 역량은 교실이 아닌 실전에서 쌓인다.

그 실전의 장이 바로 창업 공모전이다. 대학 재학 신분은 공모전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참가 가능한 공모전이 많고, 농업계열 전문대 재학·졸업 이력이 현장성 항목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청창농 대출은 졸업 후에도 열려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뿐이다. 한농대 학생이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농업 창업 공모전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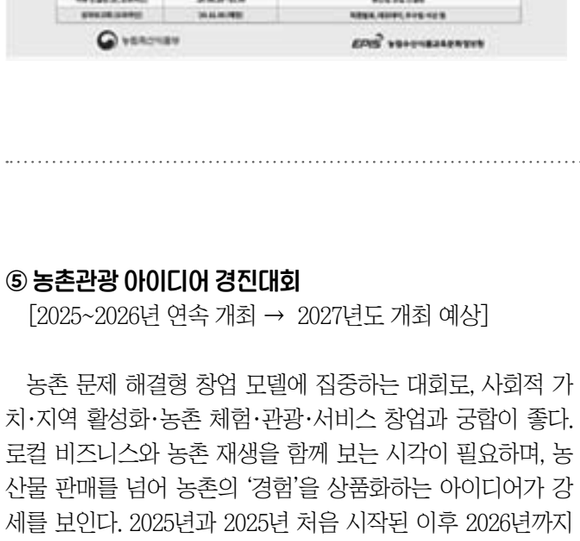


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모집 마감 완료 → 2027년 1순위 예고]

농산업 전·후방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국내 농업 창업 공모전 중 상금 규모와 후속 지원이 가장 강력한 메이저 행사로 꼽힌다. 수상 이후에는 사업화 컨설팅, 투자 연계, 판로 개척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스마트팜, 친환경 농자재, 농식품 가공, 유통 플랫폼, 6차산업 등 폭넓은 아이템이 가능하다.

2027년 5월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지금부터 아이템을 구체화해두는 것이 전략이다.

▷ 추천 전공: 원예환경시스템, 식품가공, 농업경영 등 전 전공
▷ 한농대생 강점: 작물 재배 실습 데이터, 시설 운영 경험이 현장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



④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농정원·한-뉴 FTA 연계)
[2026년 모집 종료 → 2027년 5월 예정]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졸업 예정자에게 최적화된 실전형 창업 프로그램이다. 한-뉴 FTA 농업협력사업과 연계되어 뉴질랜드 현지 사업 발표 기회, 현장 견학, 전담 멘토링, 초기 사업화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본지 1분기에 소개한 원예환경시스템학과 이주원 학우(3학년)는 이 프로그램에서 원예 부산물 기반 친환경 단열재 아이템으로 3위를 수상하며 실전 창업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농업계열 전문대 재학 이력이 서류 현장성 항목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2027년 5월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뉴질랜드의 농업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사전에 공부해두면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견학 모두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 추천 전공: 원예, 축산, 수산 등 전 학부
▷ 한농대생 강점: 전문 농업계 학과 재학 이력이 서류 단계에서 현장성 가산점으로 유리하게 작용

② 농촌창업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공동 주관)
[2026년 3~4월 마감 완료 → 2027년 3월 예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만큼 사후 사업화 연계 지원도 탄탄하다. 로컬푸드, 농촌 체험·관광, 공간 활용, 지역 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궁합이 특히 좋다. 치유농업이나 6차산업 연계 아이템을 구상 중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무대다.

2027년 3월 공고를 미리 기억해두고, 사전 현장 조사와 서류 준비를 시작해두길 권장한다.

▷ 추천 전공: 원예환경시스템, 화훼·조경, 치유농업 관심 학생
▷ 한농대생 강점: 농촌 현장 실습 이력,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경험



③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제11회 5~6월 마감 완료 → 2027년 제12회 5월 예정]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아이디어·창업 모델을 겨루는 대회로, 기술 기반 농업 창업 분야에서 존재감이 크다. 데이터 분석, 스마트농업 플랫폼, AI 기반 작황 예측, 디지털 유통 서비스 등 IT와 농업의 교차점에 있는 아이템이라면 경쟁력이 높으며 드론·센서·스마트팜 기기를 다루는 한농대 학생, 특히 IoT 기반 환경 제어나 생육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최적의 공모전이다.

2027년 5월에 참가자 모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공공데이터, AI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 지난 수상작을 미리 참고해 아이템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두길 바란다.

▷ 추천 전공: 스마트팜 전공, IT·데이터 융합 관심 학생
▷ 한농대생 강점: 실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센서·드론 활용 현장 경험



⑤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2025~2026년 연속 개최 → 2027년도 개최 예상]

농촌 문제 해결형 창업 모델에 집중하는 대회로, 사회적 가치·지역 활성화·농촌 체험·관광·서비스 창업과 궁합이 좋다. 로컬 비즈니스와 농촌 재생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농산물 판매를 넘어 농촌의 '경험'을 상품화하는 아이디어가 강세를 보인다. 2025년과 202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6년까지 연속 개최가 확인됐으며,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7년 5~6월경 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경험'을 어떻게 상품화할지 6차산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두길 권장한다.

▷ 추천 전공: 원예, 치유농업 관심 학생
▷ 한농대생 강점: 농촌 현장 밀착 경험, 지역 연계 프로젝트 이력



【공모전 한눈에 보기】

공모전 한눈에 보기

우선순위	공모전명	주관	모집 시기	추천 아이템
1순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농림부	매년 봄(~6월)	스마트팜·식품가공·플랫폼
2순위	공공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	농림부	매년 5월	데이터·AI·드론
3순위	농촌창업 경진대회	농림부·농어촌공사	매년 3~4월	로컬푸드·체험·6차산업
4순위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농정원(한-뉴FTA)	매년 5월	글로벌 진출 아이템
5순위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농과원·농어촌공사	매년 5월	농촌체험·관광·6차산업

공모전은 단순히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내 아이디어를 낯선 심사위원 앞에서 논리로 설득해야 하고, 시장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하며, 날카로운 질문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농업 창업가로서의 가장 농밀한 훈련이다.

한농대 학생에게는 현장 실습 데이터, 작물 전문 지식, 시설 운영 경험이라는 남다른 무기가 있다. 다른 대학 창업팀이 흉내 내기 어려운 현장성이다. 그 강점을 사업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이 공모전에서 시작된다.

도전해보지 않은 공모전은 언제나 '다음에'가 된다. 본 기사를 참고하여 2027년도에는 위 다섯 무대 중 하나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보길 바란다.

사회부 두기동 기자

농업 분야 자격증,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경쟁력

"농사 지을 건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농업은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물은 교과서대로 자라지 않고, 병해충은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기후 변화는 농업인의 경험과 판단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자격증은 자신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진로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과거 농업은 생산 기술만 익히면 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팜과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환경제어 시스템이 농업 현장에 도입되면서 농업인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유통과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촌 체험, 가공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농업은 이제 기술과 경영, 마케팅이 함께 요구되는 융합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현장 경험'이다. 장기현장실습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기술을 직접 익힌다는 점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장 경험만으로 모든 역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과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춘다면 취업과 창업은 물론,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진출에서도 더 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이 되는 학생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이나 종묘회사, 스마트팜 기업으로 취업하는 학생도 있다. 또한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농협, 농산물 유통기업, 식품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같은 농업을 공부했더라도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역량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대학 생활 동안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격증은 이러한 준비 과정의 한 부분이다. 물론 자격증 한 장이 농업인의 실력을 모두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기술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자신의 전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분야를 꾸준히 공부했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배기술, 친환경 농업, 스마트농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관리 등 새로운 분야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필요한 역량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격증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은 '스펙'이 아니라 '전문성'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업을 위해 따야 하는 스펙'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 자격증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자격증은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자,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식물보호기사를 준비하는 학생은 식물병리학과 농림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등을 학습하며 병해충의 발생 원인과 방제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종자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육종과 종자 생산, 품종 개량에 대한 지식을 익히게 되고, 시설원예기사를 준비하면서는 온실 환경 제어와 양액 관리, 시설 운영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시험을 위한 암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현장실습이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 '왜 이런 관리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자격증의 가치는 합격증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얻는 배움에 있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론으로 정리하고, 반대로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학생은 '농업을 아는 사람'에서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공별로 추천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

한국농수산대학교에는 원예, 축산, 수산, 푸드테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전공이 있다. 진로가 서로 다른 만큼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조금씩 달라진다.

원예 계열 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추천되는 자격증은 시설원예기사,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다. 시설원예기사는 스마트팜과 시설재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종자기사는 품종 개발과 육종, 종자 생산 분야로 진출할 때 강점이 된다. 식물보호기사는 병해충 진단과 방제 기술을 다루며 연구기관과 종묘회사, 농약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유기농업기사는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이다.

축산 계열 학생들에게는 축산기사와 가축인공수정사가 대표적이다. 가축 사양관리와 번식 기술, 축산 경영 등을 익힐 수 있으며 축산농가나 축산 관련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

수산 계열 학생들은 수산양식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양식과 친환경 양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 학생이라면 식품기사, 위생사, 조리산업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 제조와 품질관리, 위생관리 분야는 식품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구소에서도 활용 범위가 넓다.

최근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드론 조종자 자격, 컴퓨터활용능력, GTQ,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면서 농업 역시 ICT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농업은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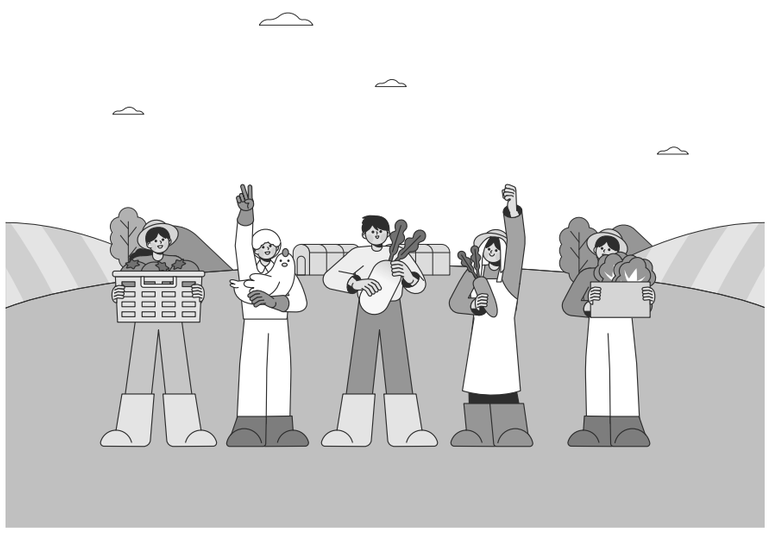
농업은 더 이상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스마트팜에서는 환경제어 시스템과 센서가 활용되고, 드론은 병해충 방제와 생육 조사에 이용된다. 인공지능은 작물의 생육을 분석하고 수확 시기를 예측하며, 데이터는 생산량과 품질을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업인은 재배 기술뿐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의 자격증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자신의 전공과 다양한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의 작은 준비는 미래의 큰 경쟁력이 된다. 오늘의 공부와 현장 경험, 그리고 꾸준한 도전이 모여 앞으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워크부 나은빈 기자



2026년 3분기 교수동정

▶ 권덕호 교수(원예학부-채소전공)

권 교수는 지난 2026년 9월 30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인 '4종 화학합성살충제의 국내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침달성과 전신이행성에 의한 약효 평가'는 국내 침입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을 대상으로 화학합성살충제 종류별 이행 특성을 사충률 기준으로 데이터화해, 실제 영농 현장의 방제 효과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승진 교원 임명장 전달식

지난 10월 1일(목),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주명 총장이 이번에 승진한 교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새롭게 승진 임명장을 받은 교원은 이원영 교수(축산학부-한우전공), 안율균 교수(원예학부-채소전공), 김연복 교수(작물산림학부-특용작물전공) 박상근 교수(원예학부-화훼전공) 총 4명이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모두를 위한 배려
흡연 예절 5가지



1.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피워요.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예절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2. 걸어 다니면서 피우지 않아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연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고, 담뱃불에 다칠 위험도 있어요.



3. 주변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요.

야외라도 비흡연자가 가까이 있으면 불을 끄거나 양해를 구해요.



4. 꽁초는 정해진 곳에만 버려요.

재떨이나 꽁초 수거함에만 버리고, 불씨는 완전히 꺼요.



5. 담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요.

흡연 후에는 옷이나 입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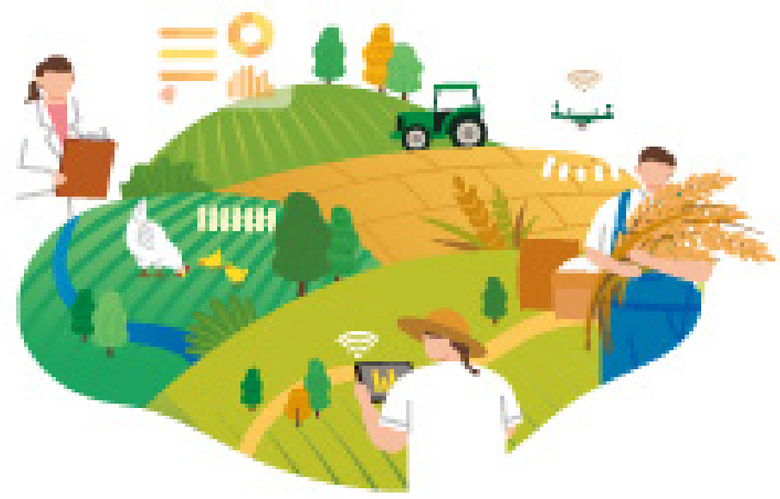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대학

수업료, 기숙사·급식비 등 전액 국비지원

2학년 농어장 현장실습



국내 유일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대학

특별한 혜택
학생 전원 수업료, 숙식 제공

ICT 교육 인프라
차세대 미래 핵심기술 융합 교육 실시

73개
융복합 교과목 58개
디지털전환 교과목 15개

전공심화과정
농수산물 수확 후 처리, 저장, 가공, 유통, 경영 등 교육

8,359명
1997년 개교 이래 졸업생 8,359명 배출

80.9%
영농·영어 정착률 80.9%

현장실습
국내외 선진농어장 현장실습 교육(155개소)

전공구분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산림, 조경
원예학부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과수, 화훼
축산학부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반려동물
농수산융합학부	농수산푸드테크, 농수산비즈니스, 산업곤충, 수산양식

문의 063-238-9621-3 / www.af.ac.kr

KNUAF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